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부위원장에게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75억원이 감액된 총 7,767억원 규모이며,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71억원이 증액된 7,911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부안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안군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브랜드캠페인 용역 보고회

고창군이 지난 24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사업인 '고창갯벌학교 및 브랜드캠페인 용역' 결과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창갯벌학교 및 브랜드 캠페인 운영 용역 결과보고, 고창갯벌학교 프로그램 시연, 활동사진 및 영상자료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고창갯벌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고창갯벌 유산관광 모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갯벌학교 프로그램은 올해 월별로 고창갯벌의 바지락, 해양쓰레기, 철새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운영해 왔다.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67차례 1230여명의 교육을 진행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SNS 채널 성장세

유튜브 구독자 155.7%, 인스타그램 168.4% 성장
페이스북 구독자 33%,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정읍시의 대표 소통 매체로 운영되고 있는 SNS 채널이 시민과 함께 웃고 흐뭇하며 성장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이학수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비전으로 시민소통실에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SNS 채널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MZ세대 적극 공략을 위해 짧고 강렬한 쇼츠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채널별 구독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획기적

인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3,000여명이던 정읍시의 유튜브 채널 '정읍 33'의 구독자는 11월 27일 기준 8100여명으로 155.7% 증가했고, 페이스북 구독자도 현재 1만 954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3% 이상 성장했다.

또한 MZ세대와 여성 사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타겟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168.4% 증가한 7536명의 팔로

위를 보유하게 됐다.

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스토리 등 6개 공식 채널 전반에 걸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콘텐츠 기획에 역점을 뒀으며, 정기적인 이벤트 추진과 SNS 시민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홍보 방식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진정성과 감동, 웃음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공약사업은 철저한 검토와 이행계획 수립"

11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부서별 현안사업추진 점검

정읍시는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안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실과소별로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시한



정읍시는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안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은 철저한 검토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친절과 성실함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공직자간 해이와 업무소홀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 공직자간 해이로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 전체 공직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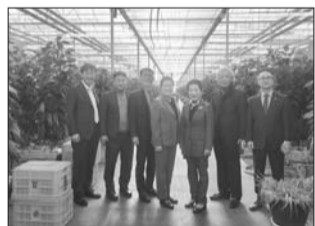
이어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올해 추진 중인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초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1월부터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 파프리카 농장 방문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지난 24일 파프리카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유리온실 시설과 재배 현황을 살펴보고, 현안사항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은 "파프리카 생육과 생산 과정에서 겪는 난방비와 인건비에 대한 애로사항과 선별 작업장의 종사자와 주민의 고충에 대해 경청했다"며, "불합리한 농가 지원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장시간 지속되어 온 경제체제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염전 소금 활성화 방안 찾아야"

고창군의회, 2차 본회의서 군정질문 잇따라

지난 27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제30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및 군정 발전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군정 질문이 진행되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오세환 의원은 고창군 미당시문학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당 서정주를 친일반민족행위자라 비판하며 미당시문학관의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이어 군정질문은 차남준 의원, 임종훈 의원, 조민규 의원 순서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차남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선문초서문화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으로 사용 중인 구 신왕초등학교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고창군수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다.

임종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반영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질문과 고창 염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소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조민규 의원은 고인돌 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원 조성과 고창군의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해서 질문했다.

임정호 의장은 "오는 고창군민을 대신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군정 운영 방안이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4일 심덕섭 고창군수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청년단체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데이(2023. 11. 24)는 지난 24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열렸다.

부안청년UP센터, 성과공유회·네트워크 데이

부안청년단체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데이(2023. 11. 24)는 지난 24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15개 청년단체와 중앙청년재단의 지역특화 청년사업 참여자들 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다양한 청년단체와 함께 교류하는 기회였다.

특히, 이날 행사는 23년 청년정책 추진 성과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15개 팀이 각자의 청년지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24년 사업설명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공유하였고 말미에는 친목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이벤트 후 단체별

네트워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과공유회 이후에는 단체별로 네트워크 시간을 갖고, 교류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번 성과공유회에 참가해보니 청년단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부안에 활력이 되도록 더 많은 활동에 참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안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